

김 교육감 “교내 교통안전 주의를”

확대간부회의... 코로나19 지나친 공포심 경계해야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 밖 교통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이들의 등교 시각과 교직원 및 외부 방문객이 방문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그동안에는 학교 밖 학교 주위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왔는데 이제는 학교 내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구간을 통과할 때 경각심을 갖고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원



칙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기초학력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는 이를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들의 기준에서 기초학력을 정의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학력 격차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격차와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북은 기초학력을 교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지도할 때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그 결과는 학부모에게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기초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공포심을 갖는 것

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일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긴장감은 일을 못 하게 만든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되 지나친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적정한 햇빛을 쬐고 물을 잘 마시고 이용하고, 식물성 비타민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바이러스가 창말하는 시대에 전북교육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면역을 강한 교육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사)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대표 김태환)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지능화 인력 양성 ‘손잡았다’

전주비전대-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산학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사)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대표 김태환)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순직 총장을 비롯해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조용호 선교지원처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김영주 현장실습센터장, 문용규, 김용기 IT융합시스템과, 기계과 김은성, 신희재 교수, 최동학 부회장, 이상진 혁신리빙센터장 최은혜 과장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스마트제조산업 개발 관련 기술협력 ▲스마트제조산업 및 산업지능화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인프라 지원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연계 협력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및 국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체험활동

등 지원 등이다.

한편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KOSMIA)는 국가 제조업혁신3.0 전략의 하나인 스마트공장(산업지능화 선도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제조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현대중공업(산업데이터플랫폼), 현대로보틱스(지능형 로봇), KT(5G), LG CNS(산업데이터/AI) 등이 산업지능화 협의회 산하 비영리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최동학 부회장은 “산업지능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핵심역량인재를 전주비전대학교와 면밀히 협력해 맞춤형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육상 선수들이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의 U-20(주니어) 육상경기선수권, U-18(청소년) 육상경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순창에서 열린 제24회 초등연맹 회장기 전국테니스대회에서 전주 금암초 선수들이 금빛 사냥에 성공했다.

전북 육상·테니스 선수들, 전국대회 ‘선전’

원반던지기 신유진 금메달 등

전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다.

29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북 육상 선수들이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겸 U-20(주니어) 육상경기선수권, U-18(청소년) 육상경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 원반던지기 기대주인 신유진(이리공고)은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유진은 48.58m를 던졌는데 이는 14년만에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또한 익산사범의 신소민(800m)과 이리공고 홍승연(해머던지기)·최하나(포환던지기), 전북체고 이정현(해머던지기) 등도 금빛 사냥에 성공했다.

아울러 익산사범의 김영빈은 멀리뛰기 2위를 기록했고 전북개발공사의 김지은과 김민지는 각각 400m와 멀리뛰기 등에서 값진 3위를 기록했다.

순창에서 열린 제24회 초등연맹 회장기 전국테니스대회에서도 전주 금암초 선수들이 금빛 사냥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초등 대회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대회로 알려졌는데 전주 금암초는 단체전에서 남자부 우승 여자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창단 후 첫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금암초는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현재 초등 테니스 연맹 랭킹 1위인 조세현(12세부)은 우승을 차지했고 이수민(12세부)과 방준영(8세부)은 값진 3위를 기록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은 물론이고 실전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전북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체육회에서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달 학부모교육

전북도교육청은 7월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불부(父)랑 놀자(子) 아버지교육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

학교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 등이다.

먼저 7월 2일부터 29일까지 이봉순 강사를 비롯한 29명의 강사가 군산파랑재지역아동센터 외 25개 기관 및 학교를 찾아가 바른 먹거리, 기후환경, 청소년도박,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주제로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4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놀부(父)랑 놀자(子) 아버지교육’이 열린다. 원예치료전문가 유미경 교수가 강사로 나서 초등학생 자녀 및 아버지 80명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정화 및 미세먼지 예방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중부비전센터 2층 시청각실에서는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이 진행된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광희 소장이 강사로 나서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 이해와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역할을 주제로 4차시에 걸쳐 특강을 펼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우리 지역의 일하고 싶은 기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0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전라북도 선도기업, 하든챔피언 기업 등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직접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내 우수 기업의 유망성 복지제도 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도내 기업 중 일하고 싶은 기업명과 선택 이유 등을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jiac.kr/ateain)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외국인 비대면 원격수업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부의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권고안에 따라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원격수업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호원대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7월 13부터 5주 동안 집중수업을 통해 대면 강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했다.

비대면 원격수업 외에도 dingtalk 및 Wechat 메신저를 이용해 비대면 수업 상황에도 학생들이 충분히 협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 063-322-6668